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38. 마드리드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1월 14일이 밝았다. 화창하고 추웠다. 오늘 우리는 마드리드를 떠난다. 다음 행선지는 바르셀로나, 오전 11시 30분 아베리아 항공편을 타고 갈 것이다. 마드리드에서 4박 5일은 너무 짧았지만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이기도 했다. 길게 느껴지는 까닭은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한 기억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일찍 일이나 준비를 마치고 뜨겁고 진한 커피를 한 잔씩 마셨다. 프렌트에 내려가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을 떠났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다.

호텔에서 불러 준 택시를 타고 우리는 스페인 내무성 건물 사이를 빠져 나왔다. 아주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너무 조용해서 머무르는 동안 전혀 불편이 없었던 우리 호텔이 멀어져 가는 사이 택시는 우리를 태우고 마드리드의 아침 물결 속으로 달려 갔다. 오늘은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인다. 건조한 겨울 공기 속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색채의 대비가 더 선명해 보였다.

절제가 있고 스타일이 있다. 꾸미려는 의도나 체하는 과장이나 안달하는 조바심이 전혀 없다. 마드리드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인식하에 존재한다. 거점이 없고 분명하다. 마드리드의 건축물들은 위용을 자랑하며 좀스럽게 치장하지 않는다. 모든 기본은 처음부터 완벽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래서 낡아지고 더러워질 것이지만 끝까지 자긍심과 위엄을 지키며 사라져가는 노장처럼 만만치 않다. 높이 고개를 들고 갈기를 휘날리며 당당하게 걷는 흑마처럼 마드리드는 멋지고 초연했다.

마드리드-바라하스 공항에는 9시 30분쯤 도착했다. 5일 전에 도착했을 때처럼 한산하다. 우리는 금새 체크인

을 마치고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했다. 예정대로 11:30분에 이륙할 것 같다. 시간이 꽤 남아서 우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기로 했다. 커피 한 잔씩밖에 마시지 않아 둘 다 배가 몹시 고팠다. 우리는 하몽 샌드위치와 요구르트를 사고 주스 바가 보여서 얼른 야채주스도 샀다. 푸드 코트 같은 곳에 테이블 하나를 잡고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 중에 우리 옆 테이블에 공항 레스토랑 직원인 듯한 아가씨 몇 명이 와서 자리를 잡았다.

아가씨들은 도시락을 싸 와서 먹는 것 같았는데 눈여겨 본 까닭은 빵 펀 토마테(Pan con Tomate)를 즉석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재미있게 보였기 때문이다. 빵 펀 토마테는 말그대로 빵에 으깬 토마토를 발라 먹는 스페인 음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통 빵을 두껍게 썰어서 굽고 잘 익은 토마토를 으깨 빵에 바른 다음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는다. 스페인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고. 우리도 마드리드에 머무는 동안 두어 번 먹어 보았는데 담백하면서도 은근히 중독성이 있었다. 아가씨들은 식빵 조각을 꺼내더니 조그만 일회용 케첩 패킷 같은 것을 꺼내어 쭉 짜서 발랐다. 자세히 보니 케첩이 아니라 빵 펀 토마테 용 토마토 소스였다. ‘아,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게 저런 편리한 것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어 신기하게 보았던 것 같다.

바르셀로나행 아베리아 항공 비행기 A-320편은 11시 30분 정각에 떠났다. 마드리드에 도착할 때는 밤이어서 야경이 무척 아름다웠는데 낮에 떠나면서 내려다본 마드리드는 온통 갈색이고 건조한 느낌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겨울 하늘이 인상적이었다.

바르셀로나까지 비행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피곤해서 좀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바르셀로나에는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랬을까? “엄마, 나는 바르셀로나가 정말 좋았어! 엄마도 좋아할 거야!” 친구들과 함께 바르셀로나에 두어 번 왔었다는 ROI 옆자리에서 소곤거렸다. 그래. 바르셀로나도 정말 좋을 거야. 마드리드가 너무나 멋지고 좋았던 것처럼. 어느새, 바르셀로나에 착륙하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비행기 창 밖에는 맑은 하늘 아래 짙푸른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바르셀로나가 내려다보이기 시작했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 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회사를 취급하며 손님께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OB07129 Skim8588@yahoo.com

TENGKU THANK YOU CHICKEN

NEW

찜닭	커플사이즈 \$26.99
	패밀리사이즈 \$39.99
순살치킨	후라이드/양념/간장 \$19.99
콤보스페셜	
A	찜닭 + 우동 \$36 \$48
B	찜닭 + 콘치즈 \$36 \$48
C	찜닭 + 모듬튀김 \$39 \$51
D	찜닭 + 오뎅탕 \$42 \$54
E	찜닭 + 순살치킨 \$43 \$55
F	2치킨 \$36
G	3치킨 \$54

(714) 278-1090 화~일 3pm~8pm
매주 월요일 휴무
2009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3

TANG

순대국 돼지국밥 전문점



설렁탕 / 도가니탕
감자탕 / 선지해장국
뚝배기 불고기
순대접시 / 순대전골
순대볶음 / 감자탕 전골

설렁탕 육수 판매 **\$6.99**



부에나팍점

Open: 10am~9pm

714. 266. 0309

72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플러튼 본점

Open: 10am~10pm

714. 680. 9550

1937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3